

백삼위 한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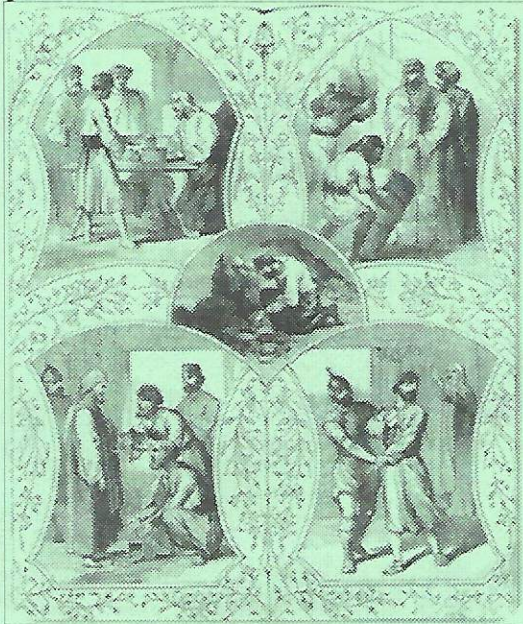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위령성월 연중 제33주일

제34권 51호(가해) 2014년 11월16일

[묵상]



∴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작은 일들이나 자질구레한 일들도 귀찮아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게 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하느님께 사소한 것이란 없습니다."

세상의 한 복판에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은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아니라 평신도입니다.
누구에게는 왜 다섯 탈렌트를 주고
두 탈렌트를 주며,
또 왜 한 탈렌트를 주었느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기보다는
남과 다른 재능을 받은 만큼 부지런히 잘 활용해
세상을 복음화시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텍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3: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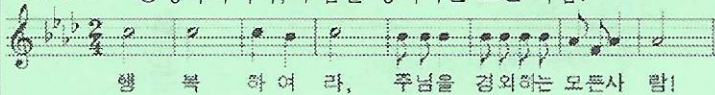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민찬기 요한,
특전미사	(생) 성영님 엘리사벳 & 성유진 로렌스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야고보, 이윤조클라라, 박무성, 고준희제임스, 하제도 송근섭 발렌티노, 전시용 요한, 김옥순 소피아, 이석진 가브리엘, 이종갑 부르노, 김경옥 요셉, 이용식 베드로, 최천옥 말가리다, 허동수 루이스&허정자 레지나, 배소용 & 김순조 & 배일호 헨리, 한무런 마리아, 송봉규 요셉 & 송공랑 카타리나 & 김임주 안나, 이종희요셉&윤기출마리아&이재우마티아, 돌아가신 레지오단원들, 정학순 발바라 & 김 야고보, 이철우 야고보, 김영철 제임스, 맥스 하드린 & 도날드 브라운, 김분례 막달라 & 김영수데레사, 원율리안나&최미카엘&최허버트, 낙태, 유산된 영혼 & 연옥 영혼 최부근루사, 박순희 로사 & 임재화 안나, 엄은섭 도로테오, (생) 반비오 & 만나영 체칠리아, 현시영 요셉, 마이클 이리아테, 최석원 안드레아 & 박민아, 최기남 야고보 & 최옥희 테레사, 김일선 베드로, 배경미 안젤라, 서성용 베드로, 장영우 엘리사벳, 고정민, 김연희 루시아와 칠남매, 모든 냉담자와 이단자, 박중용 시몬, 김영길 안드레아 & 김복희 로사, 박삼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잠언 (Proverbs)31,10-13.19-20.30-31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 2독서 데살로니카(Thessalonians)5,1-6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5,14-30(25,14-15.19-21)

영성제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401	182	231
봉헌	270	254	269
성체	주품에	289	281
파견	394	350	199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쇄신

3) 성령에 관한 또 다른 이단

12-13세기에 활동하였던 피오레의 요아킴(†1202)도 성령과 교회의 제도를 대립적으로 보았다. 그는 세상의 역사가 삼위 일체의 세위격에 상응하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의 아버지 시대로서, 혼인한 자들과 평신도들이 지배하는 시대다. 그다음은 신약 성경의 아들 시대로서, 사제들이 지배하는 시대다.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의 시대로서, 수도자들이 지배하는 시대다. 피오레의 요아킴은 성령의 시대가 1260년에 몇 가지 대변동이 일어난 뒤 실제로 도래할 것을 예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제3 시대의 교회는 더 이상 성직자 중심의 베드로 교회가 아니라 요한 교회, 초대 교회와 비슷한 개혁된 영의 교회다. 비로소 이 시대에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것이며 영적인 성경 이해도 관철될 것이다.

요아킴의 이러한 주장은 토마스 데 아퀴노 성인(†1274)과 보나벤투라 성인(†1274)에 의해 그리고 1215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배척되었다. 이렇게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를 배척하는 이단적 경향과 투쟁하는 가운데 성령과 교회를 일치시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교회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3. 성령에 관한 새로운 이해

교회는 성령과 교회의 제도를 대립적으로 보는 이단과의 투쟁을 거치면서 점점 더 교회의 제도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12세기 이후 서방 교회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성령에 대한 논의와 언급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사실 성령의 은사가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에서 사라진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언제나 교회 안에 머무르시면서 교회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1) 교회의 쇄신과 함께하시는 성령

비록 12세기 이래로 성령에 대한 관심이 퇴색된 경향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성령의 활동과 그 열매는 분명하게 확인된다. 항상 교회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교회의 쇄신을 위해서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에 필요한 카리스마를 지닌 수도회들이 창립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이다. 예를 들어서 908년경에 설립된 클뤼니 수도회는 수도원의 개혁과 교회 개혁에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1226)이 시작한 프란치스코 수도회(작은 형제회)는 청빈의 삶으로써 교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도미니코 성인(†1221)은 설교 수도회인 도미니코회를 창립하여 이단에 빠진 이들을 다시 정통 신앙으로 인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계속>

움직임의 시간과 한숨의 시간

오늘 마태오 복음과 비슷한 설정이 루카 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루카 복음보다는 맡겨진 금액이 훨씬 큰 것이 눈에 띕니다. 루카 복음에서는 각각 한 미나(100데나리온=60분의 1 탈렌트)씩만 맡기지만, 마태오 복음에서는 첫 사람에게 다섯 탈렌트(=30,000데나리온), 둘째 사람에게 두 탈렌트(=12,000데나리온), 셋째 사람에게 한 탈렌트(=6,000데나리온)를 맡깁니다. 아주 큰 금액이 맡겨진 것입니다. 제일 적게 받은 사람에게도 사실 충분한 금액이 맡겨졌습니다.

충분한 금액과 충분한 탈렌트! 우리가 받은 것이 적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는 정말 초라한 탈렌트만 주어졌을까요? 혹시 초라하다고 생각한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지레 겁먹은 것이 아닐까요? 남보다 적게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마태 25,19) 이 ‘오랜 뒤’는 주인의 입장에서 종들에게 위탁 재산을 활용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금방 셈하지 않고 시간까지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움직임의 시간’과 세상을 타하는 ‘한숨의 시간’이 잘못 섞여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움직이면 될 것을, 한숨으로 나를 어딘가에 숨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마치 맡겨진 한 탈렌트마저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마태 25,18)라는 말쑤처럼 말입니다. 땅에 돈을 그냥 묻어 두는 행동은 주인이 돌아올 때를 대비하여 그에게 해명할 명분만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변명거리를 미리 준비해 두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그냥 숨겨둔 채 숨죽이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숨겨둔 수많은 탈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탈렌트들이 그냥 묻혀진 채 또 시간이 지나고 있음을 봅니다. 아주 작은 봉

사라도 지금 당장 나설것을 청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두려운 나머지...도로 받으십시오.”(마태 25,24-25) 셋째 종의 변명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듯이 보이지만,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주인의 위탁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다. 자신의 일로 여길 때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길 때 문이 열릴 것입니다. 또 그는 주인의 됄됨이를 관대함이 아닌 탐욕과 냉혹함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게으름을 먼저 탓하기 전에 주인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세상에 대한 원망과 탓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만들고 맙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면 나에게 주어진 탈렌트로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풍성한 주님의 은총을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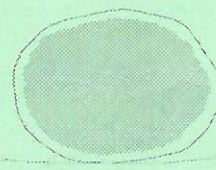
◆장귀석 신부/명일동성당 주임

욕망- 내려놓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알았으니 됐습니다.

이제 전 모든 것로부터 떠나
모든 것으로 돌아옵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남성철 베네딕도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례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김낙기 바오로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11월
위령성월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모든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 요셉회 11월모임안내

- 일시 : 오늘주일(16일)11시미사후
- 장소 : 강당
- * 추수감사절 특별점심 준비중, 부부동반 환영

◆ 울뜨레아 및 주일학교 기금마련을 위한 대추판매

- 일시 : 11월 22일(토)특전미사후, 23일(주일)
- 판매가격 20불
- 문의 : 남해나 분다 ☎ (310)384-3289

◆ 제33회 남가주 한인 추수감사절 합동야외미사

- 일시: 11월27일(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엘도라도팍 (Long Beach소재)
- 미사집전 : 호세 고메즈 주교님
- 주관 : 성 바실 성당
- 준비물 : 햇빛가리개 모자
- 점심 : 본당 제공
- 카풀 : 당일 오전 9시까지 성당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행사당일 오전 9시30분까지는 공원주차 무료
- 이날 본당 평일미사(목 7:30pm)와 예비자 교리 없습니다.

◆2014년 남가주 꾸르실료 송년의 밤 행사

- 일시 : 2014년 12월6일 (토요일) 오후6시
- 장소 : 성 바오로 성당 (St. Paul Korean Church)
- 티켓 : 10불
- 문의 : 남해나 분다 ☎ (310)384-3289

◆남가주 한인 M.E sharing 송년 파티

- 일시 : 12월13일(토요일) 저녁 6시
- 장소 : The Center at Sycamore Plaza (Lakewood Community Center)
- 연락처 : 정동호 하삼바오로 ☎(310)780-9055

◆ 추수 감사절연휴

- 11월 30일 9시30분미사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주일학교, 한국학교 수업은 없습니다.
- 문의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16일(주일) * PV 1반 : 육개장 (\$4)
* 주일학교 : 스펀 무수비 (4학년)
- 11월23일(주일) * 토동2,3반 : 소고기우거지국밥(\$3)
* 주일학교 : 주먹밥 (K, 3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교무금						성전헌금	성전헌금					
	김기정	김민석	김상근	김옥보	김옥찬	김원호		김기정	김원호	김정엽	김정희	김종렬	김효진
	김정엽	김정운	김정희	김종렬	김효진	노혜숙		노혜숙	민순섬	박광자	박영룡	박음전	손 석
	민순섬	박광자	박영룡	박음전	배태임	손 석		안태갑	엄세중	원건희	유경자	윤선희	윤희동
	안태갑	엄세중	원건희	유경자	윤석구	윤선희		이경수	이상석	이명자	이일길	장영우	정규숙
	윤희동	이경수	이명자	이상석	이석진	이소영		정정현	정정현	차인수	최진수	한창주	
	이은경	이일길	이재용	이형철	장영우	전정자							
	정규숙	정정현	정정현	차인수	최의수	최진수							
	한창주	황철수											
합계 :5,030							합계 :2,580						
주일미사 헌금 : \$2,677							한남체인 : \$260						
광고비 : \$ 250							감사헌금(이봉덕):\$ 500						

공지사항

◆ 소년레지오마리에 단원(그리스도의 어머니 Pr.)모집
자녀들이 레지오 활동을 통해 성화를 이루며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신앙활동을 하면서 성장하도록 권면합니다.

- 대상 : 주일학교 등록학생
- 주최 : 매주 금요일 오후 4:30pm
- 장소 : 성당2층 교실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단장 ☎(310)709-3343

◆ 한국학교에서 함께 봉사하실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 문의 : 한국학교장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KCYD (Korean Catholic Youth Day)

FIAT 주최로 매년 열리는 한국어 카톨릭 청소년의 날 KCYD (Korean Catholic Youth Day)이 2015년1월3일(토) 애나하임에 있는 Servite High School 에서 열립니다.

- 일시 : 2015년 1월 3일 (토요일)
- 장소 : Servite High School (애나하임)
- 대상 : 8학년 ~12학년
- 신청마감 : 12월 14일까지 \$30, 21일 까지 \$40
- 문의 :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점심식사와 기념셔츠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세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제27기 커피 교육 안내

- 일시 : 11월 16일(일요일) 낮 2시 ~6시
11월 17일(월요일) 저녁 6시 ~10시
양일중 택일하여 수강후 10회 실습
- 장소 : 성 아그네스천주교회 회의실
- 수강료 : \$200
- 문의 : 323-731-4433(사무실)

☺ 서로 인사 합니다. ☺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김양금 안나 991-4838 11/15(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요한 701-6343 11/8(토) 오후 6시 성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1/14(금) 오후 7:30 성당
토런스 서 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 오780-3258	김대우 비오 920-7647 11/15 (토) 오후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홍광선 요셉 991-8556 11/8(토) 오후6시
	3	정광미프란체스카 617-1132	박명순안나 750-0540 11/14(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 방지거 625-3312 11/21(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634-6923 11/7(금) 오전11시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이상철 크리스토퍼 11/8 (토) 오후 6시 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최기호 스테파노213)222-3168 11/3 (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윤진 카타리나 749-3151 11/8(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유근우 알렉시오 735-3722 11/14 (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이재준 요한 793-6157 11/15 (토)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김병록 요셉 503)927-0770 11/14(금) 오후7시
	4	이귀란 아녜스 617-3568	박혜은 모니카 377-6752 11/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 회장단 회의 오후1시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 회의 오후1시

124위 시복특집< 11 > 주문모 야고보 신부 (1752~1801년)

... 나는 천주교를 위하여 죽습니다...

1752년 중국 강남성 소주부 곤산현에서 태어난 주문모 야고보 신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삶바느질하는 고모 곁에서 성장했습니다. 이후 장성하여 북경에 간 그는 서양 선교사를 만나 서양 학문과 천주교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후 선교사들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하여 세례를 받고 북경교구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경 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서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북경의 구베아 주교는 조선으로 파견될 선교사로 주문모 신부를 선발하고 그에게 성무 집행을 위한 통상적인 권한과 특별한 권한 모두를 부여했습니다.

1794년 2월 북경을 떠나 조선으로 향한 주문모 신부는 우여곡절 끝에 그해 12월 24일 밤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한양 최인길의 집에 여장을 풀 주문모 신부는 성무 집행을 위해 한글을 배우는 한편, 1795년 성주간에 세례와 보례를 집전하였으며, 한자를 통한 필담으로 신자들에게 교해성사를 주었습니다. 이어 부활대축일에는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최초의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서 사목을 시작한 지 6개월도 채 안되어 배교자의 밀고로 발각되었고, 이 와중에 그를 극진히 보필하던 윤유일, 지황, 최인길 등이 순교했습니다. 가까스로 강완숙의 집에 몸을 숨긴 주문모 신부는 그곳에서 비밀리에 성무를 집행하면서 순교 전까지 6년 가량 머물렀습니다.

강완숙은 양반 집안 출신이었는데, 조선의 풍습에 따르면 양반 집은 관현이 들어가 가택 수색을 할수 없었고, 더욱이 부녀자가 주인인 집에는 외간 남자의 출입이 금지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언어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고, 풍속에도 충분히 익숙해져 조심스럽게 지방을 순회하면서 신자들에게 성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발각될 위험이 있기때문에 그의 가정 방문과 사목 활동은 비밀에 싸여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문모 신부의 열성적인 사목으로 인해 신자가 6천여 명이나 증가하여, 그가 순교할 무렵에는 조선의 신자가 1만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주문모 신부는 성무활동 뿐만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저술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지은 「사순절과 부활절을 위한 안내서」는 교해성사와 세례성사를 준비하는 신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울러 최창현과 강완숙을 남녀 회장으로 임명하고, 교리를 연구하여 가르치는 모임인 '명도회'를 조직하는 등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당국은 주문모 야고보 신부 체포에 필사적이었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신자들이 그의 은신처를 추궁받으며 잔혹하게 고문당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주문모 신부는 잠시 중국에 피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신이 조선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 박해가 멎거나, 적어도 그 포악함이 덜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가던 중 황해도 황주에 이르렀을 무렵, '착한 목자'로서 자신의 양떼와 끝까지 운명

을 같이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는 조선이 섬기던 중국의 백성이었으므로 국경을 넘으면 능히 살 수 있었지만, 자수하면 신자들의 고통이 끝날 거라는 생각에 서울로 발길을 되돌린 것입니다.

1801년 4월 24일, 스스로 의금부에 간 주문모 신부가 외쳤습니다. "나도 천주교를 믿소. 듣자하니 정부에서 천주교를 엄금하고 매일 무죄한 백성을 죽인다 하여 나도 죽여 달라고 청하러 왔소. 내가 당신들이 사방에서 헛되이 찾는 그 신부요." 그는 즉시 체포되어 옥에 갇혔습니다. "왜 조선에 왔느냐?" 판장이 물었을 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조선에 온 목적은 한 가지뿐이요. 즉 참된 종교를 전하여 이 불쌍한 백성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요."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그는 모든 질문에 진중하고 슬기롭게 대답하였고, 천주교에 대한 길고 웅변적인 호교(護敎)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주문모 신부의 처리를 두고 대신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일부 대신은 중국과 맺은 조약에 따라 그를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다수의 대신들은 천주교의 두목을 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문모 신부의 사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사형 집행 날, 관례에 따라 다리에 매를 맞은 그는 들것에 실려 시내에서 10리 되는 곳에 있는 노들 혹은 새남터라 불리는 군(軍)의 사형 집행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들것에 실린 채 장터를 지나며 구경꾼 무리를 조용히 둘러보던 그는 목이 마르다며 술을 청해 한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가 형장에 도착하자 박해자들은 그의 양쪽 귀에 화살을 꽂고 재판 기록과 판결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문서를 침착하게 끝까지 다 읽은 주문모 신부는 소리를 높여 모여든 군중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주교를 위하여 죽습니다!" 군중 둘레로 세 바퀴 조리돌림 당한 그가 마침내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기쁘게 머리를 숙이니 그 머리가 곧 칼 아래 떨어졌습니다.

1801년 5월31일. 당시그의 나이 49세였습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役員

<전례 상식>

성당에 들어갈때 성수를 찍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성수를 찍는 행위는 성당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례를 기억하며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 생각과 원의, 탐욕과 근심, 미움 등을 모두 떨쳐 버리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수대를 성당 안쪽에 놓아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